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2500여명 전부 효력발생은 아냐

시멘트업종 모든 운수사·운수종사자에 포괄 지시 원희룡 “운수사 209곳, 운수종사자 2500명 대상”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정상운송자엔 명령 안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집단운송거부가 잇따라 계속되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수사업자 200여곳, 운수종사자 2500명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들 모두에게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 한 해에 두 차례 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지자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로는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원 장관은 “그동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안 하고 매년 어정쩡하게 타협하면서 이들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집단적 힘을 행사하는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현장 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시멘트 분야 운수사업자 200여곳과 시멘트를 공장으로부터 운반하는 약 2500명 이상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수종사자들이다.

원 장관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 209개 정도의 운수사와 약 2500명의 운수 종사자”라고 밝혔다.

또 “일감과 변호관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운수사들에게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며, 변호관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전체 시멘트 업종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일 뿐, 이들 모두에게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후 실제 운



28일 오전 시멘트를 운송하려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입구로 들어오고 있다. 단양지역 시멘트 업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 호위를 받으며 시멘트 출하를 재개하고 있다.

송거부 여부가 확인되는 운수사와 화물차주 등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서를 송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사는 200여곳을 현재 조사 중이지만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 또 BCT 기준 시멘트 운송 전용 차량은 대략 2800대 정도로 보고 있다”며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법적인 효력은 개개인에게 명령서가 도달을 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운송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명령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전국 200여곳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개별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주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30일 및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해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업계, 6월 파업보다 더 늘어난 ‘기름 품질’ 주유소...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수원시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질 안내문이 붙어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잇따라 이어지며 서울 수도권에서 휘발유가 품질된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정유업계 피해가 유독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6월 총파업 때와 비교해 이번 파업에선 정유업계의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단기간 급증하며 기름 수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한층 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화물연대 파업 이후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주유소들이 휘발유 품질 안내문을 잇따라 내걸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석유 제품 판매량이 많거나, 재고 회전율이 높은 주유소는 지금부터 품질되고 있다”며 “저유소에서 나오는 비조합원의 운송도 방해 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방해로 비조합원의 운송률이 2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유조차) 운전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평균 70%에 이른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가입률이 90%에 달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10%에 불과했던 가입률이 불과 5개월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경우, 탱크로리 차량의 70~80%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비중이 높은 데다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가 이어지며 정유업계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6월에는 정유 4사 중 한 곳에서만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10% 정도였고,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며 “그런데 6월이후 이달까지 불과 5개월새 화물연대가 조합 가입률을 대폭 늘리며 이번 파업 직전에는 조합원 가입률이 서울 수도권의 경우 90%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6월 파업 때보다 이번 파업에서 주유소 피해가 한결 심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탱크로리 등), 사료·곡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다.

뉴스스

| | | | |
|--|-----------------------|---|----------------------------------|
| 호남신문 i-honam.com | |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언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 |
|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 | | |
| 동부취재본부 |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 (061) 905-2011 |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 (02) 2238-0003 | |
| 기사제보 | (062) 222-2580 | 광고전통 |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
|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 | | |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